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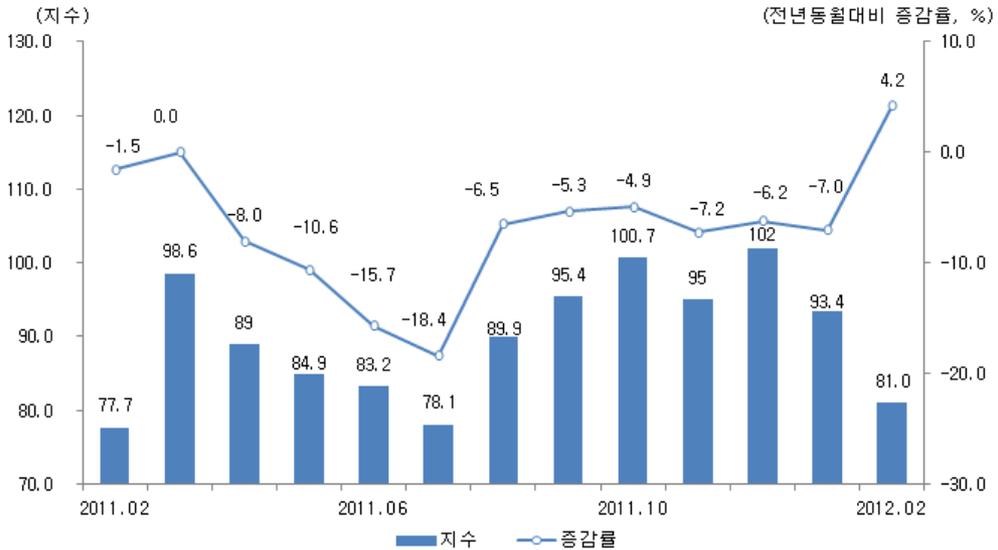
소비	<p>서울의 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8.6% 증가하여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션용품과 식품의 판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달 판매 상승은 신학기 준비와 겨울용품의 마지막 세일 등의 영향으로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p> <p>전년동월대비 부문별로 판매액은 백화점 11.1%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5.0% 증가 하였으며, 권역별로는 4권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및 강동구가 1위, 그 다음으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인 것으로 나타났다.</p>
고용	<p>서울의 2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에 비해 실업률 증가 취업자 감소 등의 난조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였으나 실업률은 증가하였고 취업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청년층에서 감소, 고령층에서 증가하여 청년층 취업자 수 하락이 서울의 취업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p> <p>그러나 고용률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58.9% 상승하여 전국(57.1%)에 비해 1.8%p 높은 고용 수준을 보였다.</p> <p>서울의 고용은 아직까지 안정화 단계로 볼 수 없으며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반적이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파악된다.</p>
물가	<p>서울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항목은 농축산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압력에 대비하기 위한 유통시장 개선 및 정부의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p> <p>지역별로는 전도시의 물가지수의 전년동월대비 평균은 3.1%로 나타나 서울과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p>
부동산	<p>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주택전세가격은 2개월만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지역적으로 살펴 보면 강남구와 양천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물량이 적체 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가격은 주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요층에 맞는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p>

| 생 · 산 |

서울의 2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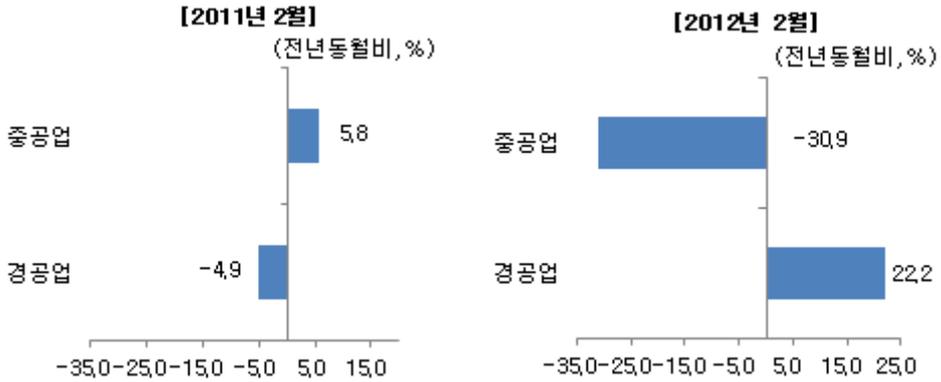
■ 서울의 2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2월 산업생산지수는 81.0(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0.9% 감소,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2.2% 증가
- 전년동월대비 전기장비, 금속가공, 기계장비, 종이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은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인쇄 및 기록매체 등에서 증가
- 12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세로 반등하였으나 중공업 부문은 여전히 부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2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2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8.5% 상승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 인쇄 및 기록매체 등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14.8%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 도매소매 등이 증가하여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출하 · 재고 순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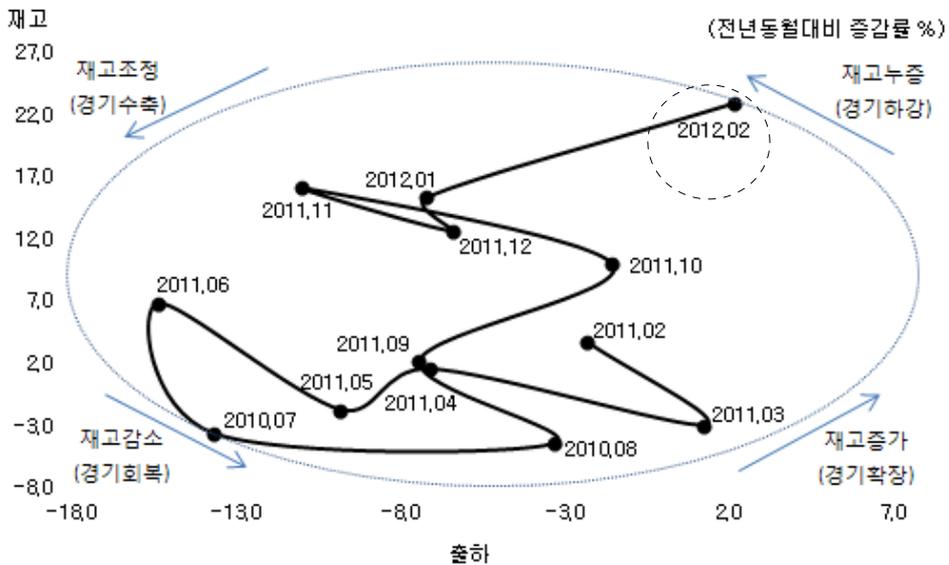
서울의 2월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

■ 서울의 2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서울의 2월 재고지수는 178.3(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23.1% 증가
- 전년동월대비 출하지수는 90.7(2005=100.0)로 2.1% 증가
- 출하 증가, 재고 증가로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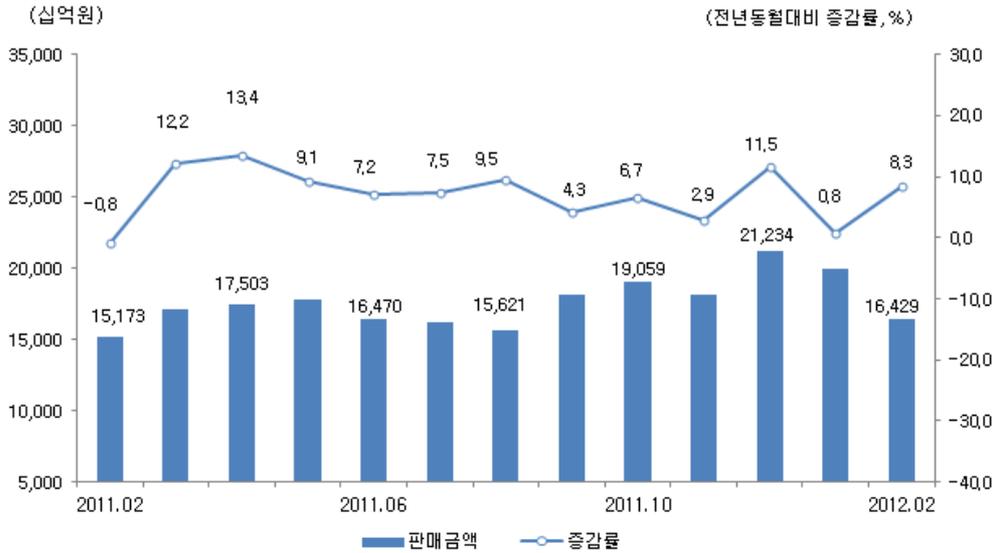
-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8.6%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1.1%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판매액 1조6천478억원 중 패션용품이 40.1%인 6천600억원, 식품이 29.9%인 4천924억원, 생활용품이 18.7%인 3천85억원을 판매됨

■ 서울의 2월 대형종합소매업의 판매액 중 패션용품, 권역별로는 강남 3구 각각 1위

- 백화점 판매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56.3%)이며 생활용품(20.5%)인 것으로 나타남
- 대형마트 판매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식품(56.8%), 생활용품(15.9%)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4권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40.6%인 4천759억원을 판매하였고, 다음으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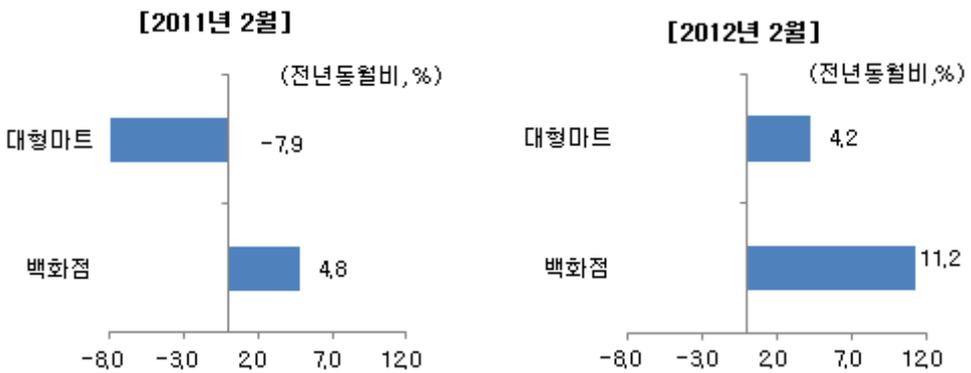
■ 전국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5.3%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4.9% 증가, 대형마트는 0.5% 감소
- 유형별로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11.1% 증가,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는 3.6%, 의복 등 준내구재는 2.1% 판매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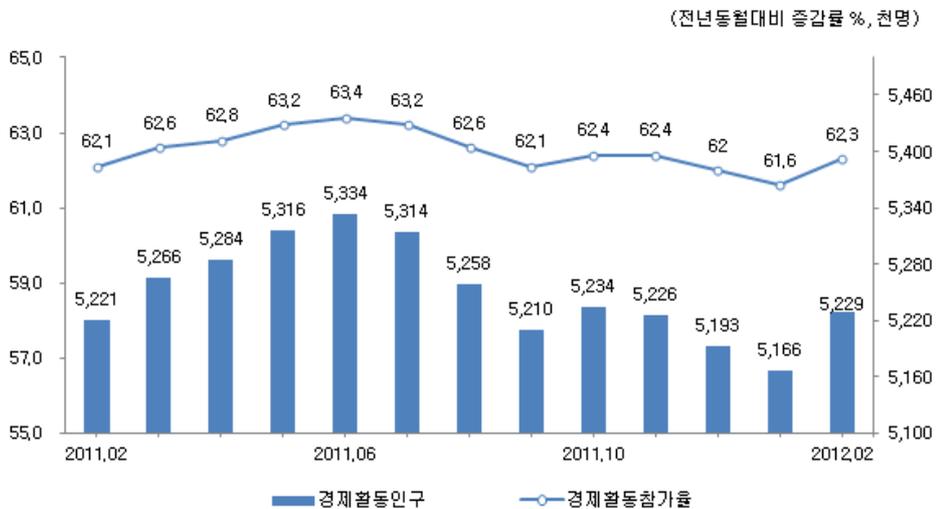
서울의 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2월 15세 이상 인구는 8,39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명(-0.1%)이 감소
- 경제활동인구는 5,22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0.2%)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는 3,16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명(-0.6%)이 감소

■ 전국의 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2월 15세이상인구는 4,136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만명(1.2%)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482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만4천명(1.6%)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2%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자는 48.3%로 0.4%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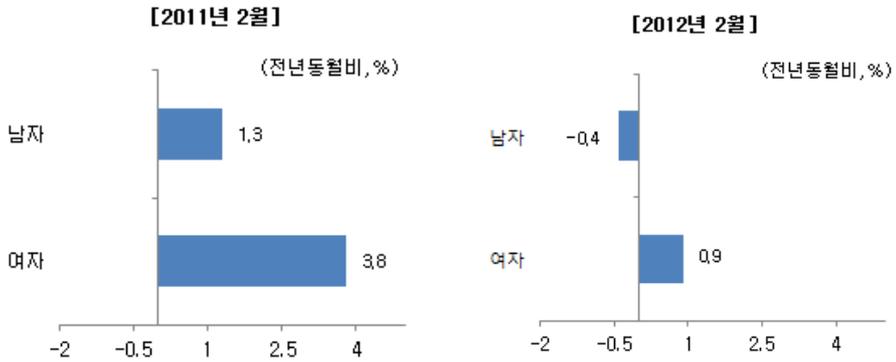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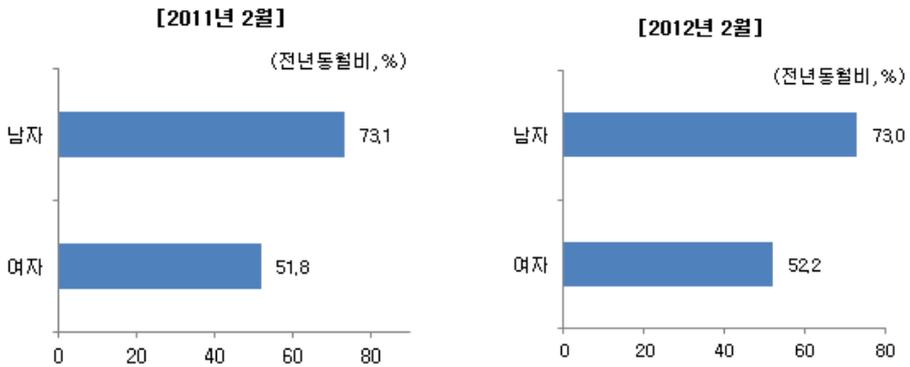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

■ 서울의 2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남자는 하락, 여자는 상승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67천명, 여자는 2,26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4% 하락, 여자는 0.9%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3.0%, 여자는 52.2%로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각각 0.1%p 하락, 0.3%p 증가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 취·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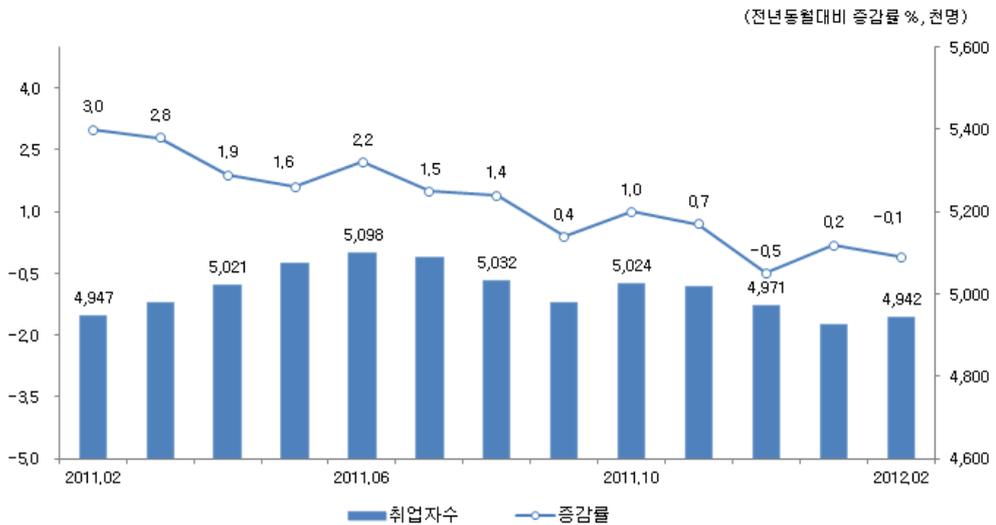
서울의 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 2월 취업자는 4,9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1%)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97천명, 여자는 2,14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5천명(-0.2%)이 감소한 반면, 여자는 0.4천명(0.0%)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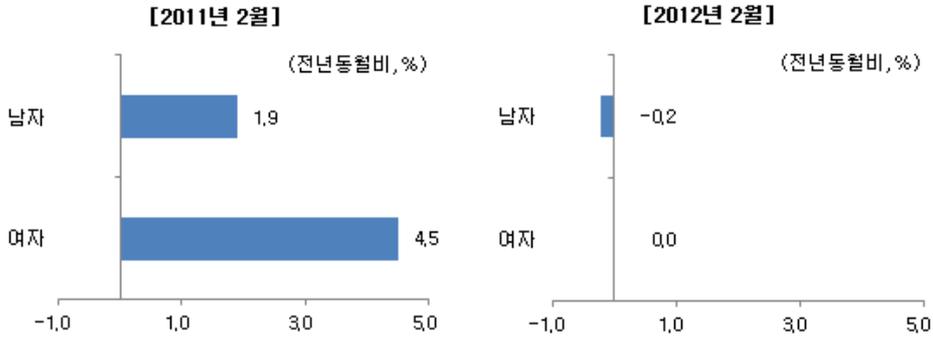
■ 전국의 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2월 취업자는 2,378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7천명(1.9%)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01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4천명(1.8%) 증가하였고, 여자는 976만4천명으로 20만3천명(2.1%)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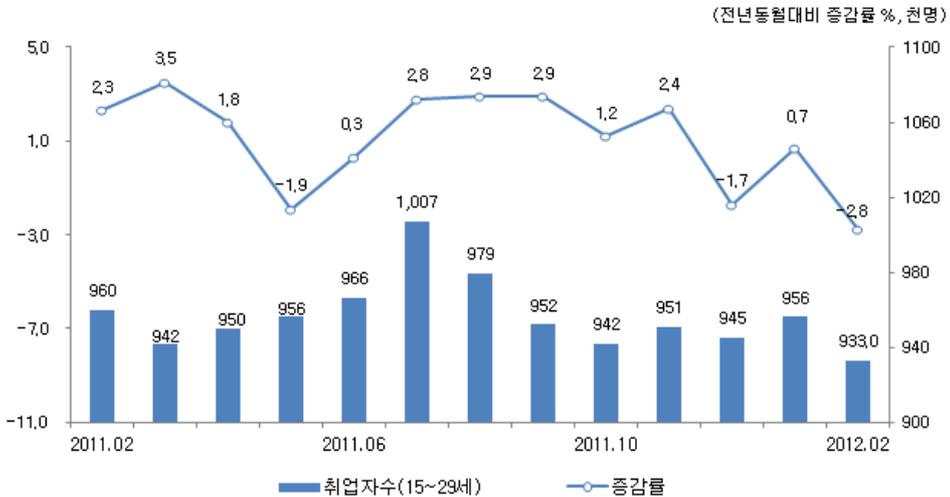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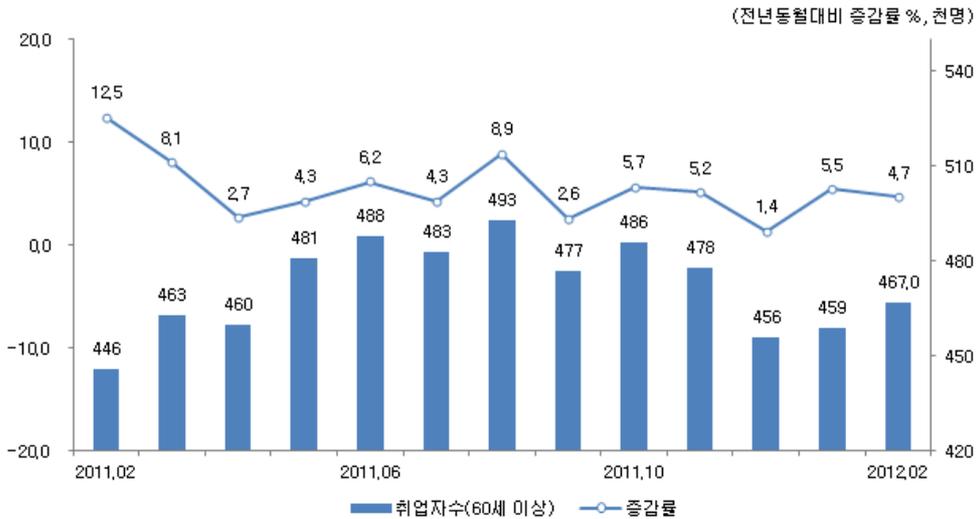
■ 서울의 2월 청년층(15세~29세) 감소,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 서울의 2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8% 감소로 5개월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
- 서울의 2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7%로 꾸준히 증가추이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농림어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2천명(61.8%),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6천명(1.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1천명(0.6%)이 각각 증가
- 건설업 24천명(-6.5%), 제조업 9천명(-1.8%), 도소매·음식숙박업 1천명(-0.1%)은 각각 감소

■ 직업별로 사무종사자 증가, 그 외 나머지 종사자는 감소

-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115천명(12.6%)이 증가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천명(-21.6%), 관리자·전문가 58천명(-4.0%),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54천명(-3.9%), 서비스·판매종사자 6천명(-0.5%)은 각각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감소,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42천명(-4.2%), 무급가족종사자는 14천명(-8.2%)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40천명(6.4%)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35천명(-3.0%), 일용근로자는 54천명(-12.8%)이 각각 감소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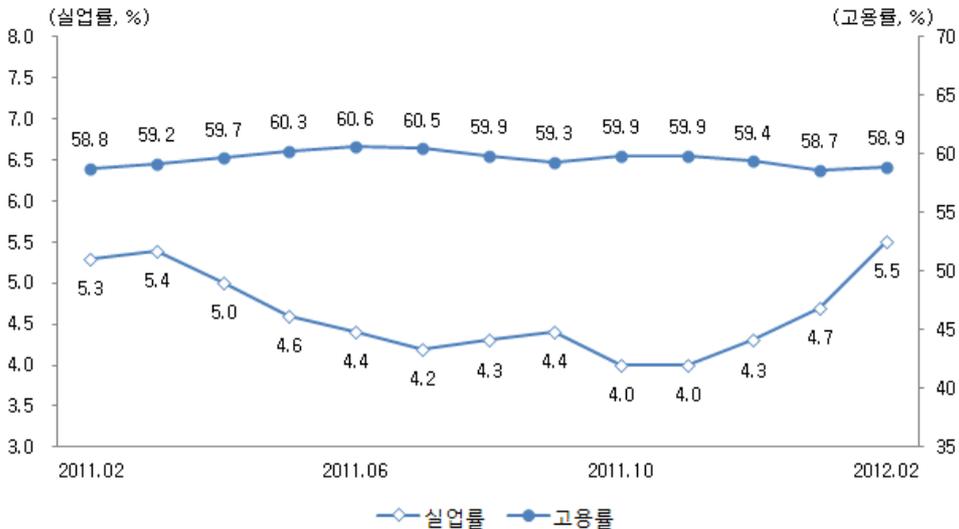
서울의 2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상승, 실업률 증가

■ 서울의 2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2월 고용률은 58.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9%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자는 49.5%로 전년동월과 보합
-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7.1%)에 비하여 1.8%p 높은 수준임

■ 서울의 2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2월 실업률은 5.5%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4.0%)이 감소한 반면, 여자는 117천명으로 20천명(20.0%)이 증가
-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4.5%)에 비하여 1.0%p 높은 수준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서울의 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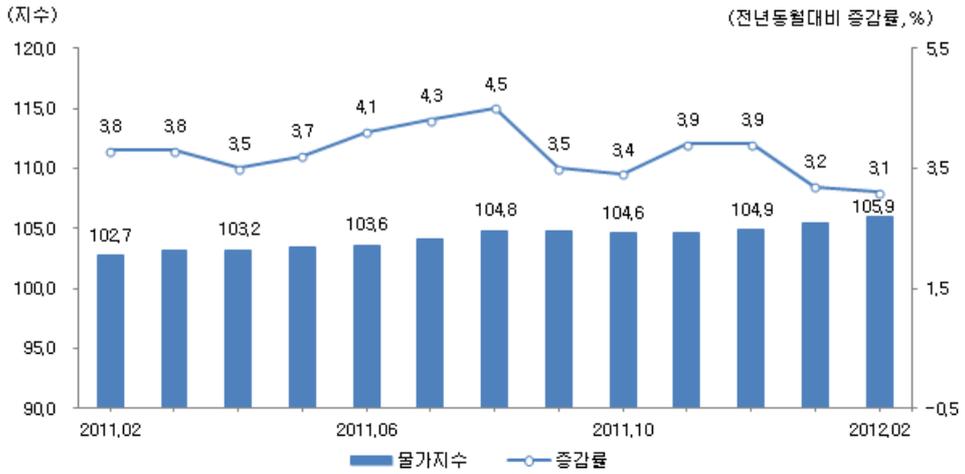
- 서울의 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5.9(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3.1% 상승
-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은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2.7% 상승 그 중 집세는 5.2% 상승, 공공서비스 0.6% 하락, 개인서비스 2.8% 상승

■ 서울의 2월 전년동월대비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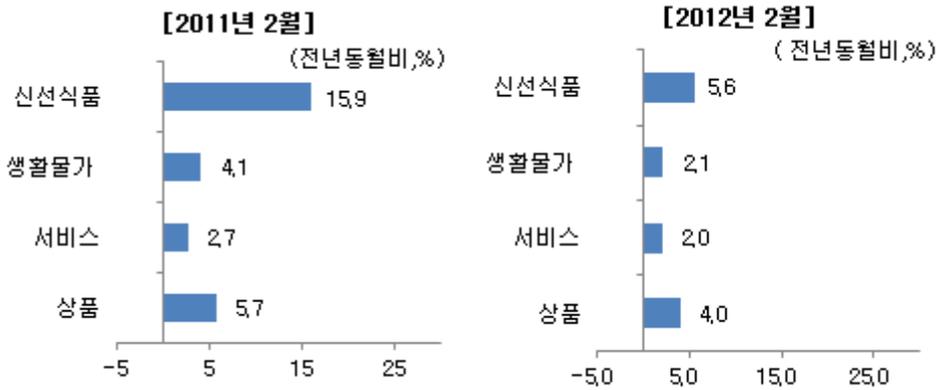
■ 전국 3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1(2010년=100)로 전월대비 0.4% 상승, 전년동월대 비로는 3.1% 상승하여 전월의 3.4% 상승에 비하여 상승폭 축소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2.8%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 월대비 3.6%, 전년동월대비 0.4% 각각 상승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부산과 강원은 0.6% 상승하였 고, 서울, 대구 등 13개 시도는 0.3~0.5%씩 상승하였으며, 울산은 0.2%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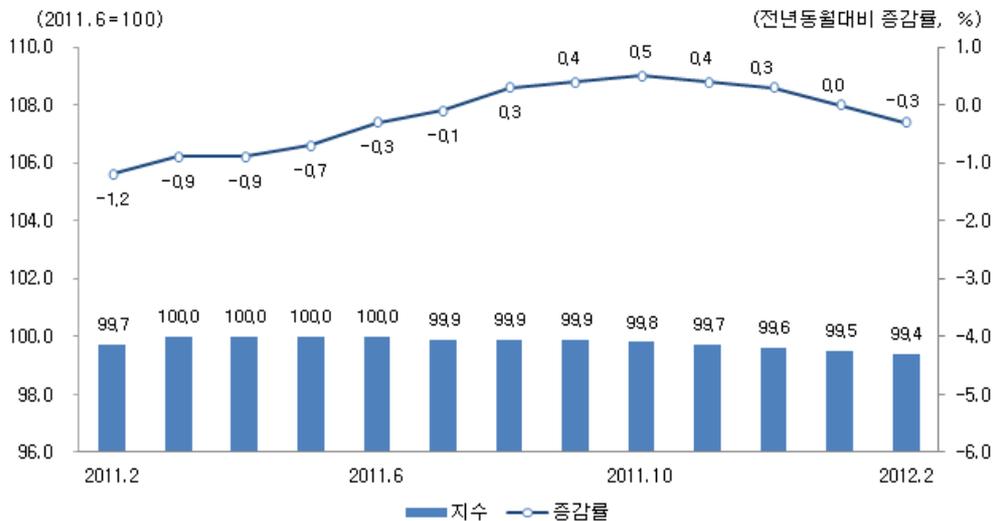
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4개월 연속 하락세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은 0.1% 상승한 가운데,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각각 0.1%, 0.3% 하락하여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하락을 주도

■ 전국의 2월 주택매매가격 전월과 동일하게 상승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광역시와 기타지방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되면서 전월과 동일하게 0.2% 상승
- 수도권은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각각 0.3%, 0.4%로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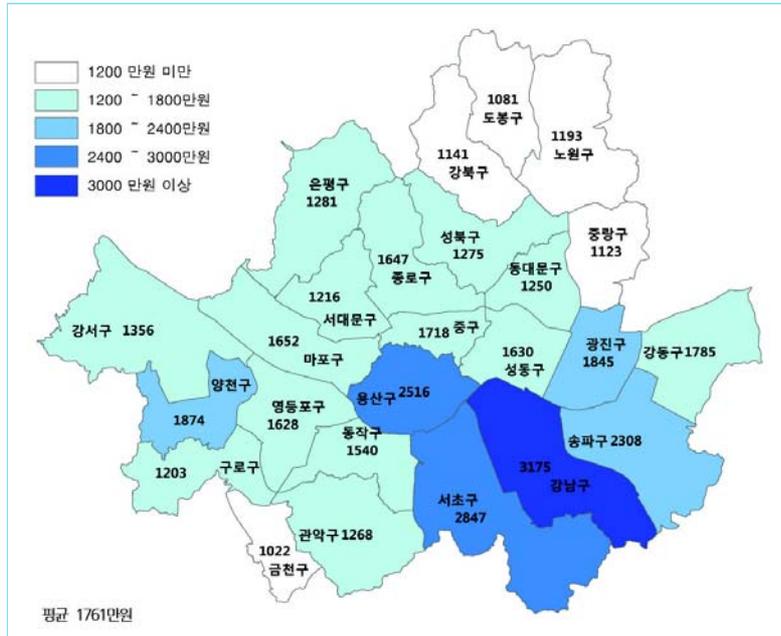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광진구와 종로구를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마포구와 용산구 등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1% 하락**
 - 광진구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적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의 수요가 발생하며 구의동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상승
 - 마포구는 매수자들의 시장 관망세 확대로 거래가 부진해지면서 중동과 상암동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3% 하락
 - 용산구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보합세로 전환되었으나 연립주택의 거래가 부진해지면서 전월대비 0.1%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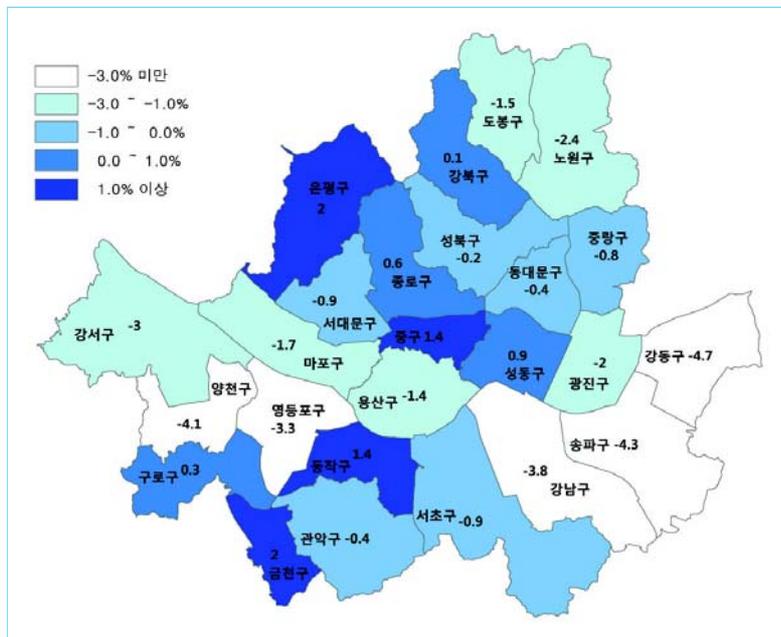
- **강남지역은 관악구에서 상승하고 양천구와 강남구 등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1% 하락하며 5개월 연속 하락세**
 - 양천구는 목동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전월대비 0.4% 하락하여 5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강남구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수세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월대비 0.2%하락

- **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761.1만원으로 전월대비(1767.6만원)대비 하락하여 1년 연속 하락세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모두 하락하였고 강남구(3,175만원), 서초구(2,847만원), 용산구(2,516만원), 송파구(2,308만원), 양천구(1,874만원), 광진구(1,845만원), 강동구(1,78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22만원), 도봉구(1,081만원), 중랑구(1,123만원), 강북구(1,14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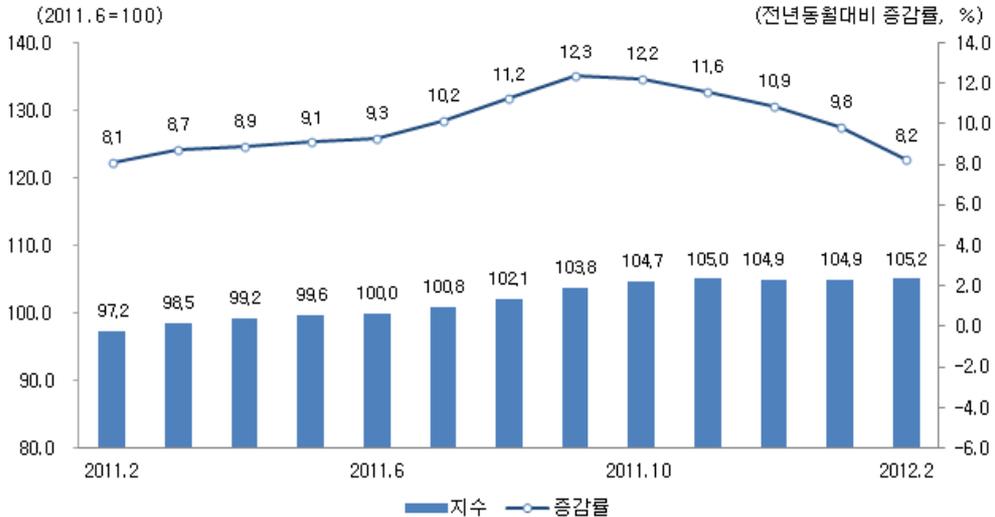
서울의 2월 주택전세가격은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

■ 서울의 2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을 준비하는 수요로 전월대비 0.2% 상승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3개월만에 반등하였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0.4%, 0.2% 상승

■ 전국의 2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광역시와 기타지방이 전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전월대비 모두 0.5% 상승하며 전국적으로 0.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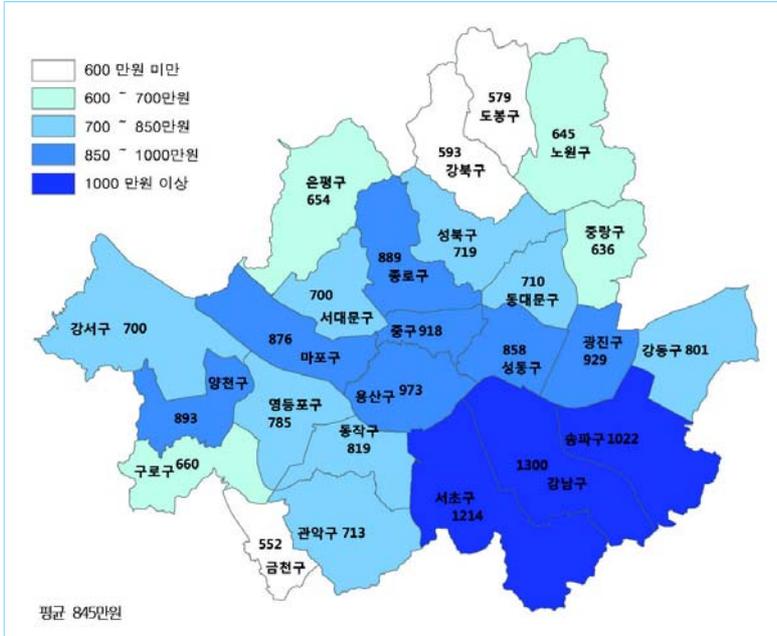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마포구와 광진구 등에서 상승하며 전월대비 0.2% 상승**
 - 마포구는 도심지 접근성이 용이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직장인 및 신혼부부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재계약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전월대비 0.6% 크게 상승
 - 노원구는 계절적 비수기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전세물량이 적체되며 전월대비 0.1%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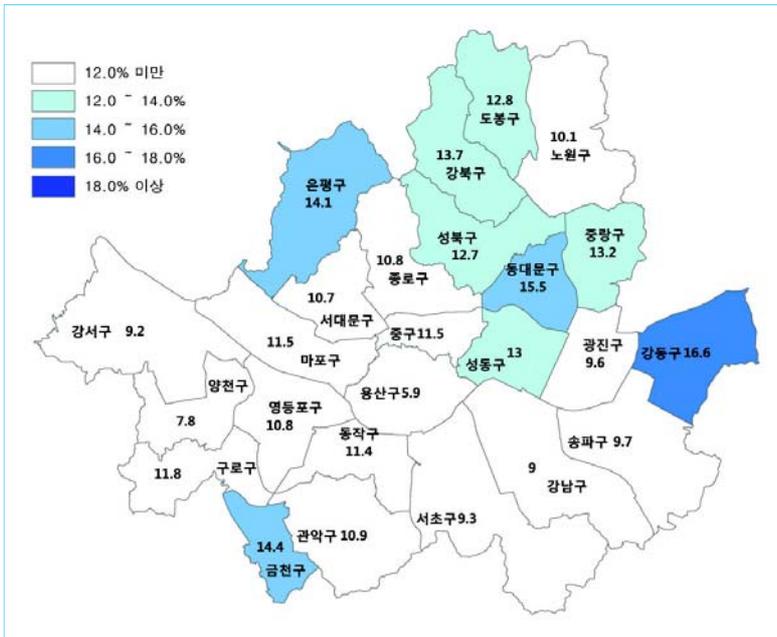
- **강남지역은 강동구와 구로구 등에서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와 양천구 등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3% 상승**
 - 강동구는 고덕시영 재건축 이주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월에 이어 1.1%로 높은 상승세 지속
 - 구로구는 신혼부부 및 가산디지털단지 직장인 수요 증가로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월대비 0.5% 상승
 - 강남구는 예년에 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학군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물량이 적체되며 전월대비 0.3% 하락하여 3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44.7만원으로 전월대비(842.0만원)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1,300만원), 서초구(1,214만원), 송파구(1,022만원), 용산구(973만원), 광진구(929만원), 중구(918만원), 양천구(893만원), 종로구(889만원), 마포구(876만원), 성동구(858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52만원), 도봉구(579만원), 강북구(593원), 중랑구(63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가 · 계 · 대 · 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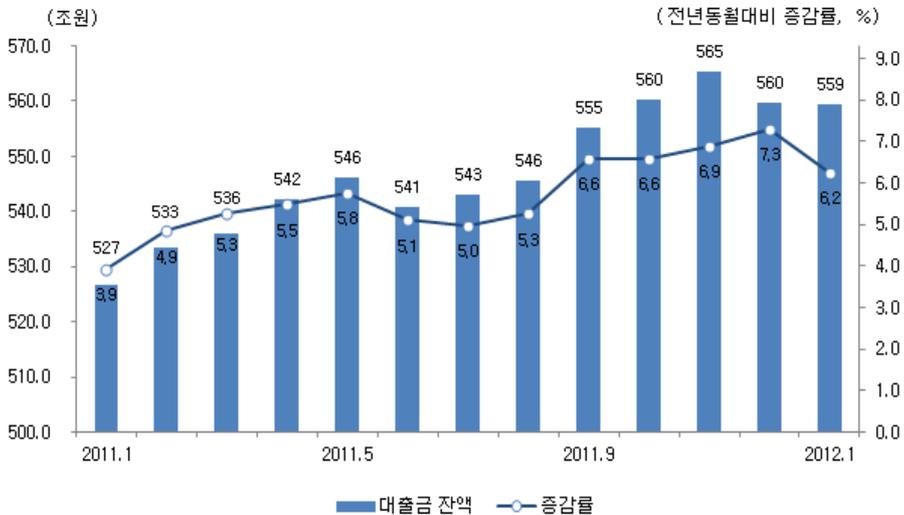
서울의 1월 대출금 잔액 2개월 연속 감소

■ 1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 1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59조 4,402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960억원(0.04%) 감소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6조 7,000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2조 7,402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7.0%, 2.9% 증가

■ 1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2개월 연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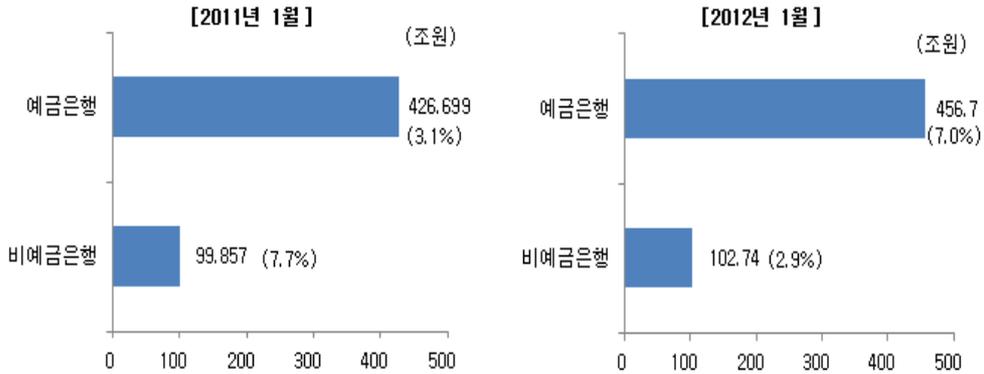
- 1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06조 4,63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 4,322억원(0.17%) 감소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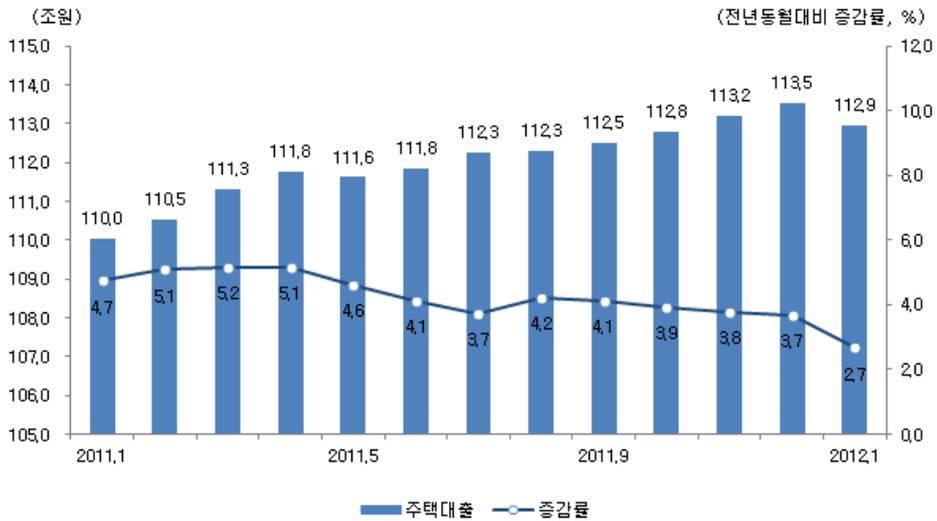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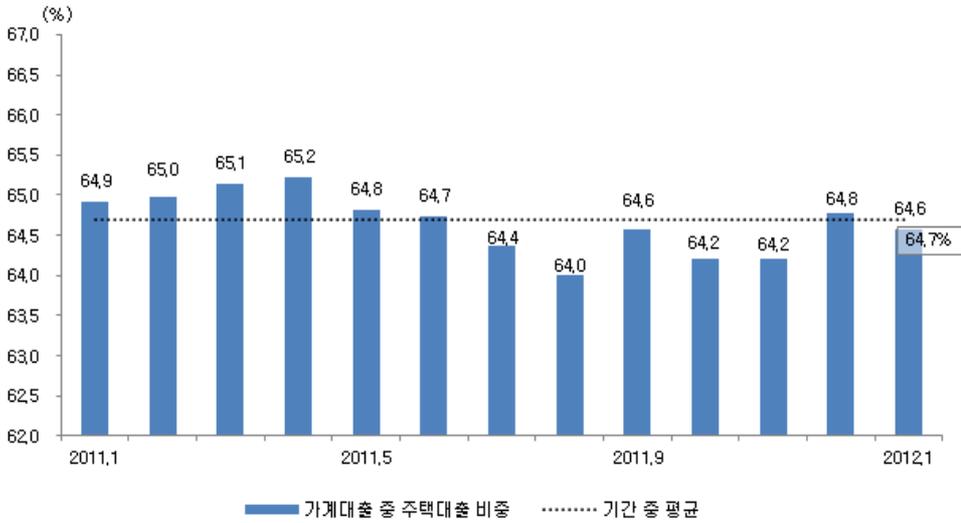
- 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4조 706억원으로 전월대비 1,010억원(0.6%) 감소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2조 948억원(64.6%)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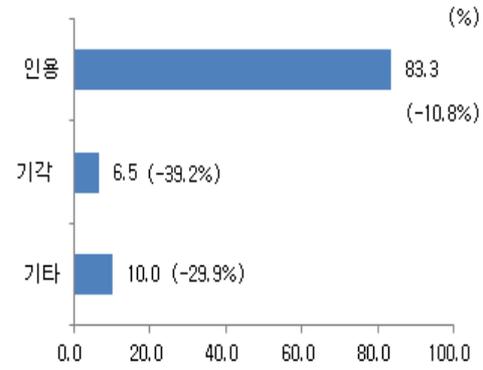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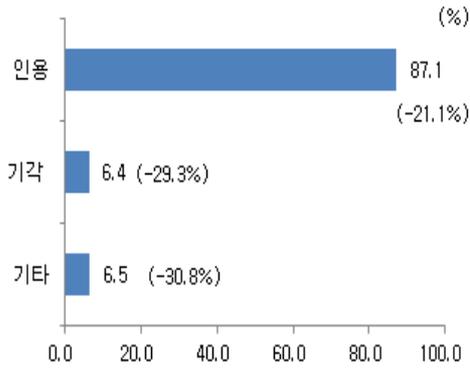
■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크게 증가

- 2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142명으로 전월대비 15.9%, 전년동월대비 24.9% 증가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6.4%로 전월대비 2.9% 증가하였고 면책 기각률은 6.5%로 전월대비 1.3% 감소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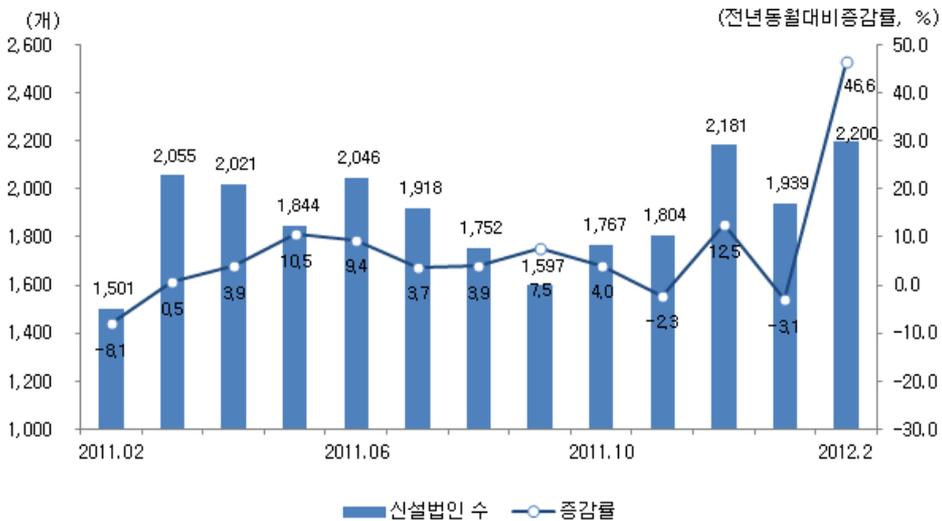
<그림> 2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2월 면책 처리현황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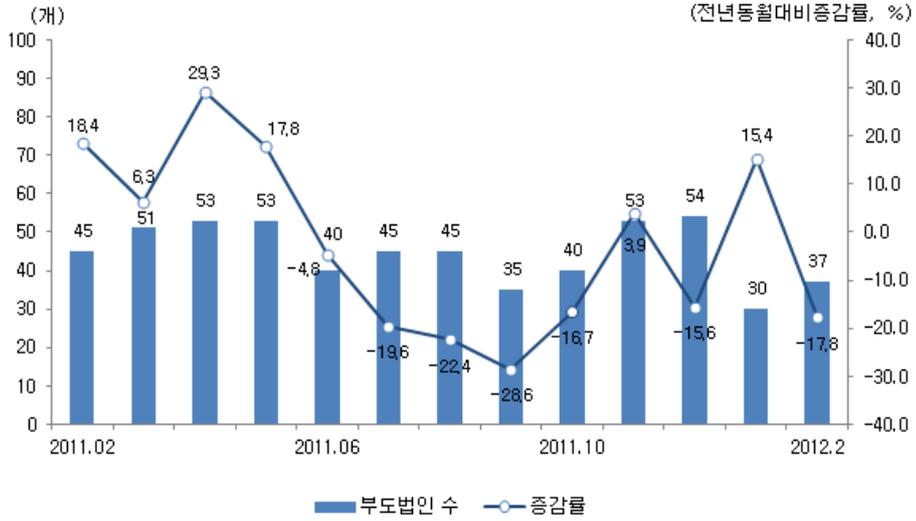
서울의 2월 신설 및 부도 법인 모두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2월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모든 업종 신설법인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200개로 전월대비 13.5%(261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46.6%(699개) 증가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과 제조업이 전월대비 각각 23.9%(28개), 23.7%(56개) 증가하였고 서비스업도 전월대비 10.1%(160개) 증가
- 서울의 2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증가,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종 부도법인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7개로 전월대비 23.3%(7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17.8%(8개) 감소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전월대비 각각 42.9%(6개), 9.1%(1개) 증가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20.0%(1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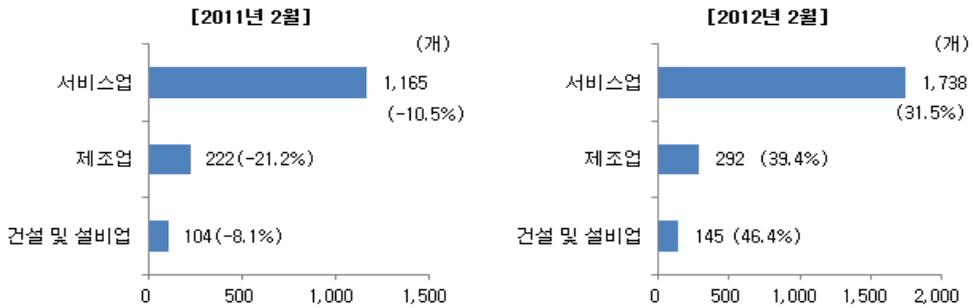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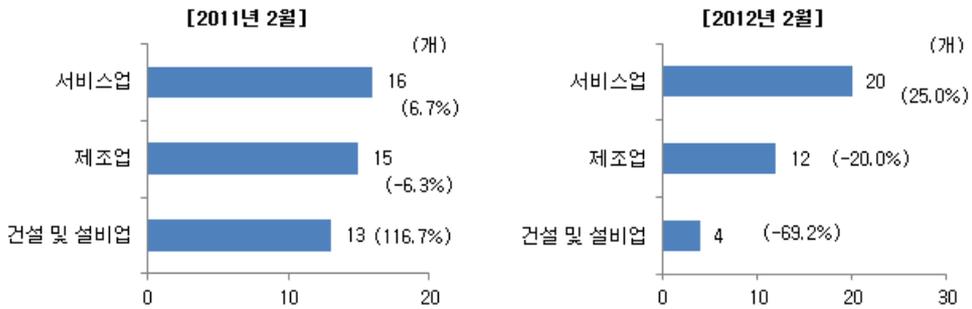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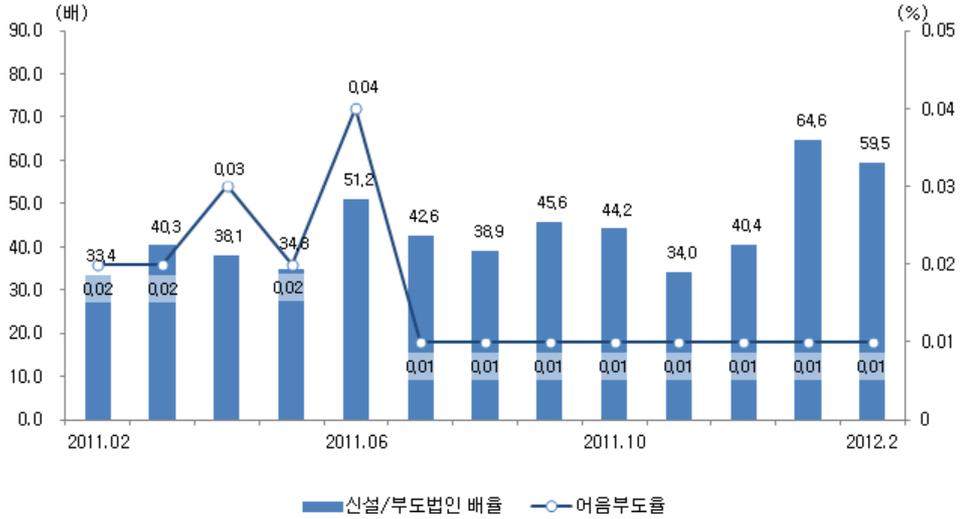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소폭 감소

- 2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8개월 연속 0.01%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9.5배로 전월(64.6배)보다 감소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서울의 2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전월대비 증가

■ 보증지원 금액과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2월 중 2,543건, 64,663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112.4%, 보증금액 140.8%, 건당 평균지원금액 13.4% 증가
-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는 23.8%, 보증금액 61.5%, 건당 평균 지원금액 30.2% 증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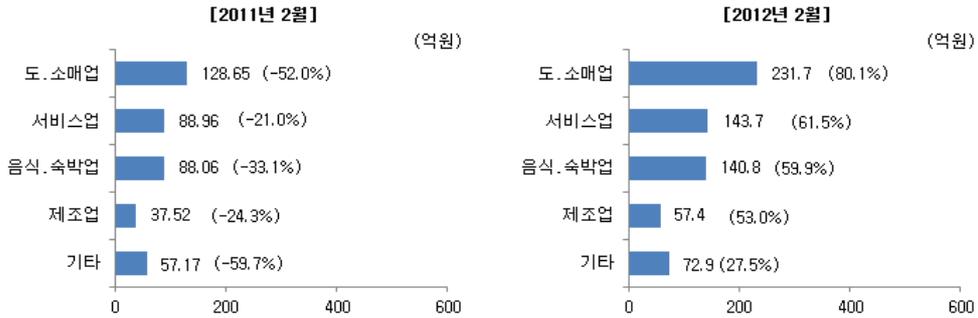
■ 제조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상승

- 2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8.9%로 전월(7.9%)대비 1.0%p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은 22.2%로 전월(24.4%)대비 2.2%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음식·숙박업종은 23.0%로 전월(21.6%)대비 1.4%p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종은 23.5%로 전월(26.1%)대비 2.6%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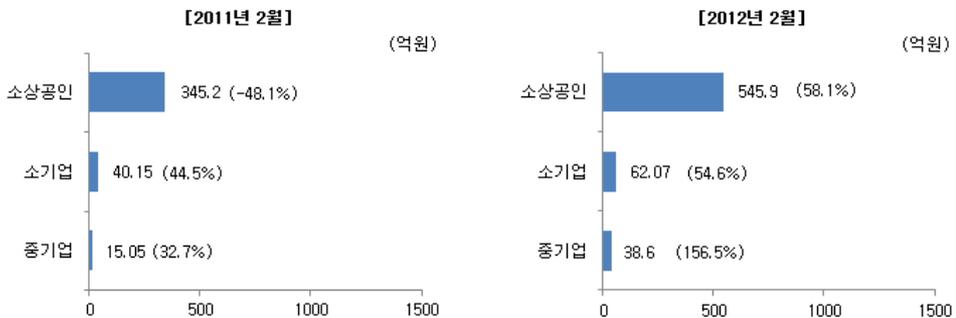
■ 소기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4.4%로 전월대비 4.7%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93.1%로 전월대비 0.5%p 증가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9.6%로 전월대비 3.3%p 감소, 건수기준 4.0%로 전월대비 0.1%p 증가하였고 중기업 비중도 금액기준으로 6.0%, 건수기준으로는 2.9%로 전월대비 각각 1.4%p, 0.5%p 감소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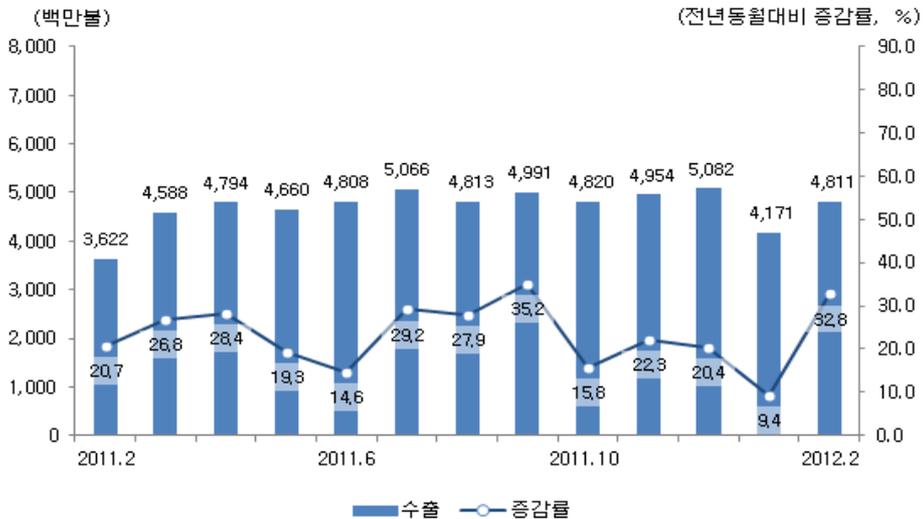
서울의 2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

■ 서울의 2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

-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2.8% 증가한 48.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3.5% 증가한 98.9억 달러 기록
-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0.5% 증가한 463.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3.4% 증가한 449.2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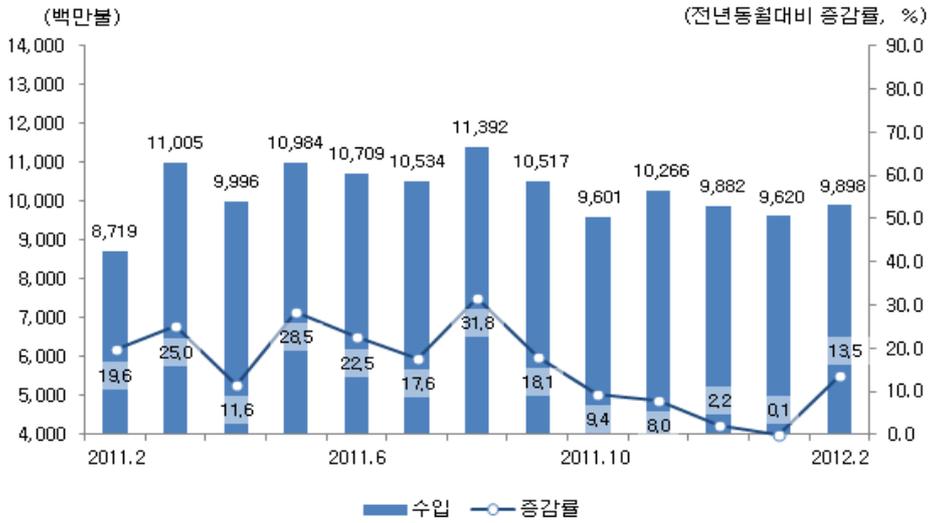
■ 서울의 2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이 559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합성수지,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990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항공기 부품, 컴퓨터, 의류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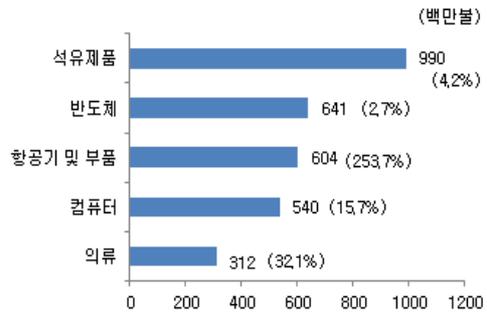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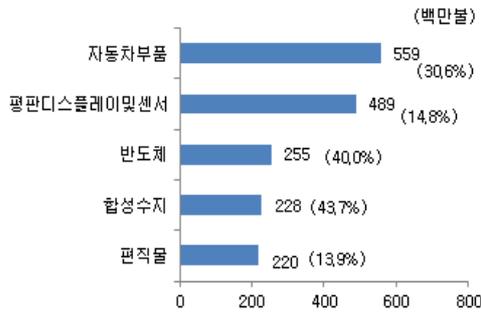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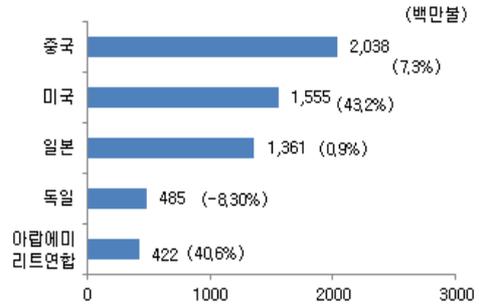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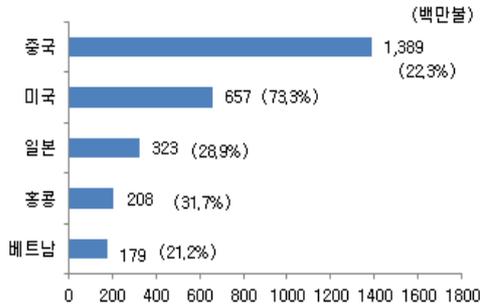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2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2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2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22.3% 증가한 1,389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한 2,038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미국, 독일, 아랍에미리트연합 순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2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2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표〉 2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

구분	순위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천불	증가율		천불	증가율
미국		합 계	657,328	73.3	합 계	1,555,496	43.2
	1	자동차부품	135,113	24.9	항공기및부품	594,541	266.4
	2	무선통신기기	107,012	190.2	곡실류	64,079	20.9
	3	고무제품	74,310	45.6	기초유분	51,958	-4.0
싱가포르		합 계	65,300	32.3	합 계	248,632	28.7
	1	반도체	24,113	61.2	반도체	104,886	3.4
	2	원동기및펌프	3,696	233.1	석유제품	29,506	1,946.4
	3	컴퓨터	3,393	65.7	컴퓨터	25,723	27.6
페루		합 계	6,866	71.4	합 계	9,837	335.2
	1	합성수지	1,639	125.3	금은및백금	7,991	670.4
	2	합성고무	1,392	1,404.1	의류	695	53.1
	3	고무제품	1,051	205.4	곡실류	690	1,328.2
칠레		합 계	17,692	84.7	합 계	52,896	36.0
	1	고무제품	3,410	185.9	동제품	14,908	50.5
	2	자동차	3,279	44.1	곡실류	11,791	55.5
	3	합성수지	2,653	167.8	육류	9,764	40.0
인도		합 계	98,260	-38.4	합 계	215,670	12.9
	1	합성고무	26,491	-4.2	석유제품	142,855	42.2
	2	자동차부품	13,852	-12.0	천연섬유사	11,270	-59.8
	3	합성수지	12,308	64.4	기초유분	8,646	40.9